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Bavinck는 아직 초창기 와도 같은 신교학분야에 광목할 만한 학문적 경향을 시도한 분이었으며 그중 하나의 결실이 이책이라고 볼 수 있다. 45년간을 직접 선교사로서, 또 대학의 교수로서 선교에 몸바친 그로서는 신교학의 학문적 이론을 실속있게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이 시대는 선교의

마지막 불꽃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 방면의 학문적 이론과 체계가 더욱 세밀화되어지고 활발해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신교학 분야의 고전(古典)이라고 할 수 있는 Bavinck의 신교학개론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회와 신학계에 기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이 나올 때는 맨 끝에 Bibliography를 첨부했으면 좋겠다.

Polished Lenses

J. A. L. Taljaard 지음
Potchefstroom, Pro Rege Press
1976.

김 용 섭
(고신대학교수 교육학)

1. 저자에 대하여

화란 자유대학의 Dooyeweerd 교수와 Vollenhoven 교수등에 의해 비롯된 철학운동이 하나님을 중심한 건전한 세계관과 인생관은 물론, 철학의 근원 파제인 올바른 인식론을 정립하여 “기독교철학”이란 하나의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므로 인간의 모든 학적추구에 정당한 규범을 제시해 주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 철학사상은 화란과 밀접한 문화적 교류를 갖고 있는 남아공화국과 미국 및 캐나다의 일부지방에 있는 개혁주의 학자들에 의해 한층 심화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면서 계속하여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남아공화국에 있어서는 Potchefstroom 대학의 고유한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던 H. G. Stoker와 B. Duvenage 등 저명한 교수들에 의해 Amsterdam의 기독교철학이 높은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한층 심화되고 발전되었던 것이다. 본 Polished

Lenses의 저자인 J. A. L. Taljaard 교수는 이미 별세했거나 은퇴한 동대학의 선배교수들에 이어 현재 65세의 나이로 Potchefstroom 철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경쟁한 칼빈주의 학자이다. 그는 Potchefstroom 대학에서 신학에 비과정을 마친 후 B. A. 학위를 얻었고(1945), 다시 동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M. A. 학위를 얻은 후 화란 자유대학에 가서 Vollenhoven 문하에서 철학자 Franz Brentano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얻은바 있다(1954) 그는 이미 1946년에 모교에서 조교로 학자로서의 생애를 시작했었고, Amsterdam에서 돌아온 후에는 철학과 심리학을 강의하던 중 1964년에는 정교수로 승진되었고 이듬해 부터 1972년까지는 철학과장으로 제임했으며 현재에 이르기 까지 Potchefstroom 철학(남아철학)의 지주로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철학의 수호자요 새로운 국면으로의 개혁자로서 개혁주의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이다. Stoker, Duvenage 등 대부분의 남아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Taljaard 교수도 그 저서들이 남아어로 되어 있어 그 사상이 널리 소개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본 Polished Lenses는 영어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상체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남아공화국이 처해 있는 특유한 지정학적 사정과 국제관계상의 사정으로 본서는 아직 외부세계에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본서의 제호에 대하여

본서의 제호 Polished Lenses는 얼핏 보기에 어떤 수필집이나 소설에 붙여질 법한 감을 준다. 그러나 단 두 단어로 된 이 타이틀은 실은 저자의 사상의 기본적 입장을 웅변적으로 밝혀주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러한 제호를 붙인 이유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pp. 7-9): 사람의 모든 행위(학문적 행위까지도)는 그의 마음(heart)에서 일어나온다고 한다. 이 마음은 그의 지금까지의 생활경험과 이에서 비롯되는 생의 태도에 따라 그로 하여금 세상만사(물)를 어떠한 입장에서 보게 하고 이에 따라 그로 하여금 행동을 어느 방향과 형태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담의 후어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저주아래 있는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죄초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언제나 비뚤어지게 보며 따라서 그 행위도 언제나 비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것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 거기에 그의 모든 행위가

올어나오는 heart에 안경을 씌우고 있는데 이 안경의 Lens가 그의 지금까지의 생활경험과 이로 인한 태도에 의해서, 특히, 피할 수 없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의 heart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와 그 안의 만물을 바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의 모든 행위도 언제나 비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heart에 씌워진 안경의 lens가 무신론이란 색깔로 더럽혀져 있을 때 세계와 인간을 보는 그의 시야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고 그의 생애와 행위에는 하나님이 제외될 수 없다고 한다. 야담의 후에인 인간은 누구나 그 heart에 죄로 채색된 lens가 끼워진 안경을 쓰고 있으므로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죄로 더럽혀진,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성(reason)이 아닌, “사람의 재생된 마음”(regenerated heart of man)이 그 기본적인 motive가 되어야 할 철학의 가장 큰 과제는 우선 heart에 씌워진 안경의 죄로 더럽혀진 lens를 Polish하는 것이요, 깨끗이 닦여진 lens를 통해 우리의 heart가 모든 것을 바로 볼 때 여기에 비로서 참된 세계관과 인생관이 가능하고 이로써 참된 생애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서서 저자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다. 매 장마다 그 주제(主題)에 ...by way of radical Biblical thinking (예: 4장, Man: Towards a Philosophical An-

thropology by way of Radical Biblical Thinking)이란 무제를 달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저자가 얼마만큼이나 터박하나 없는 성경의 계시와 권위를 가지고 철학하는 자신의 heart에 씌워져 있는 안경의 lens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순수한 lens를 통해 그가(그의 heart가) 얼마만큼이나 실재(reality)를 바로 보고 이해하고 설명하여 참 되게 철학하려(philosophize)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다.

3. 본서의 규모(scope)와 내용개요

본서는 총 6장 306면으로 되어 있다. 1장은 서언으로 본서의 제호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이고, 2장은 서설(Prolegomena)로서 본서에서 취급할 문제들에 대한 예비적 논의와 특히 근원적 실재로서의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창조역사에 대한 논의로 되어 있다. 3장에서는 Taljaard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존재론—특히 근원적실재로서의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우주(세상 만물) 창조와 그 안에 역사하는 존재법(ontic-law)—이 펼쳐져 있고, 4장은 철학적 인간론으로서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 피조의 실재로서의 인간(man as concrete created reality)에 대한 저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5장에서는 Communal Life as Concrete Created Reality란 제목하에 피조된 실재로서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비롯해서, 인간의 사회적 생이 영위되는 Community의 여러 존재양태와 이들 여러 Com-

munity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펼쳐져 있다. 무릇 어떠한 철학이든지 철학으로서의 존재근거와 그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그것이 인식론적인 타당성위에서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Amsterdam 철학이 그러했듯이 Taljaard 교수의 철학도 철저히 성경적 바탕위에 펼쳐진 그 체제의 타당성을 진지한 인식론적인 반성(reflection)으로 보장받으려 한다. 즉 구체적 실재로서의 지식(Knowledge as Concrete Reality)이란 제목하에 제 6장에서 Taljaard 교수는 고유한 기독교인식론을 모색하므로 자신의 철학의 인식론적 근거를 확립하려 시도한다.

본서에 펼쳐진 Taljaard 교수의 철학은 한 말로 표현해서 실재에 관한 철학, 즉, 존재론(Ontology)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Philosophy of Cosmonomic idea(우주법개념의 철학—Dooyeweerd, Vollenhoven)이라고 일컬어지는 Amsterdam 철학이나, Philosophy of Creation idea(창조개념의 철학—Stoker), Philosophy of the kingdom of God idea(하나님의 왕국개념의 철학—Duvenage)등으로 불리워지는 Potchefstroom 철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성경말씀에 근거를 둔 기독교 존재론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다른 기독교 철학이 취급했던 같은 문제들의 해명을 그 본질적 파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Taljaard의 철학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념 규명에 있어 다른 학자들의 기독교철학과 큰 차이를 드러내

고 있다. 그것은 저자가 철학적 규명의 대상으로 그 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하나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기독교 존재론(기독교철학)이 규명해야 할 대상영역으로 하나님과 존재법(ontic law, 그는 우주법 Cosmic law, 대신 이 말을 쓰고 있다)과 창조 전체로서의 하늘과 땅(heaven and earth as the whole of Creation, p.8)을 들고 있다. Taljaard 교수는 지금까지 기독교 철학이 단지 피조의 세계와 그를 지배하는 법(Cosmic law)만을 규명한 존재론으로서 참된 세계관과 인생관(world and life view)의 정립을 과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철학은 성경의 계시에 입각한 참된 철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Taljaard 교수는 그동안 기독교철학이 정립한 세계관, 인생관이 하나님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어서 그릇된 것이라 하여 world and life view란 말을 사용키를 피하고 있으며, 참된 철학은 성삼위 하나님까지를 포함한 성경적 존재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p.8,30). Taljaard 교수에 의하면 기독교철학—존재론—이 규명해야 할 근원적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과 존재법과 창조세계는 결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실재(reality in mutual Coherence)로서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존재법(ontic law)을 주신분(law-giver)이요, 이 법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관계(Communal relationship)를 포함한 전 우주(heaven and earth)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신(Holy Trinity)이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철학은 하나님 규명을 제외한 world and life view일 수 없다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철학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한다. 따라서 Taljaard 철학은 곧 성경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Taljaard의 장엄한 존재론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천지창조의 과정을 성경에 따라 여실히 묘사하므로 시작된다.

하나님께 대한 존재론을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경험적 대상인 것처럼 여겨 이를 경험과학의 방법으로 연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재론 당신의 말씀인 성경과 창조된 우주세계에 나타난 계시에 대한 겸손한 탐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 계시는 물론 사람에게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 해석은 사람의 마음(heart)의 행위요, 따라서 올바른 계시해석을 위해 우리의 heart에 세워진 안경의 lens는 잘 닦아져 있어야 한다. (p.31).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과 아울러 법(law)을 내어 주셨다. 이 법에는 크게 존재법(ontic law)과 실제법(Positivized law)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에서 직접 나온 법으로서 모든 존재(물) 그 자체의 존재의 실효성(Validity)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영원한 권능을 나타낸다. 모든 피조물은 이 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존재의 근거와 성질과 다양한 구조적 특성과 관계 등이 규정된다.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실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뿐이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은 이 법에 따라 존재하며 그 주체성과 객체적(공간적) 실재성과 시간성과 보편성과 개체성과 번식을 통한 생명체 지속성(geneticity)을 보존한다. 이에 대해, 실제법(positivized law)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사회적 생(Communal life)의 과정에서 그에게 부과된(하나님이 부과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든 법이다.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나 생도 이 법이 없이는 빠르게 영위될 수 없다. 이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재법과는 달리 항존성이 없고 때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제약이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pp.42-94). 인간의 사회적 생이나 관계(Communal life and relationship of man)는 다른 모든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 빙듯이 창조의 소산이다. 고독했던 아담에게 이브를 짝지워 주심으로 비롯된 인간의 Communal life of relationship은 부부(가정)생활이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도시, 국가, 나아가서는 국제적 생활이나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스럽다. 이 모든 영역에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 이르는 법이 있어 그 관계나 생을 존속시키고 지배한다. 이에 Taljaard은 Dooyeweerd의 modal law 개념을 자기나를 대로 해석, 풀이한다(pp.98-108).

Taljaard 교수는 그의 인간론에서二元론적 견해를 철저히 배격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번류관(Crown of Creation)으로서 육체와 정신을 가진 하나의 전인(a

whole man)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Taljaard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로 봄으로서 Amsterdam 철학자들이나 다른 기독교 철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께 향해 복종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둘 중의 한편의 입장에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존재로서 생존한다. 또한 아담의 후예로 죄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의 자녀라는 점에서 더욱 종교적 존재이다. Taljaard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존재의 실상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에서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인간과 맺은 계약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것은, 곧, Father-son relationship과 son-Father relationship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하여 하나님과 부자(父子)된 놀라운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생은 하나님의 계명에의 전폭적인 복종을 전제로 하는 생이어야 한다고 Taljaard은 주장한다. 이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39절에 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복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pp.153-154).

Taljaard의 인간론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의 Dooyeweerd의 인간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소우주인 인간의 heart가 인간 존재의 중심이요 전 우주의 초점(Concentration Point)이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Dooyeweerd의 이론에 대해서는 Taljaard는 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적 존재인 인간의 heart가 하나님의 형상이 좌절하는 중심부로서 그의 전 현실적생과 전 현실세계를 하나님께 대한 봉사애로 집중시킬 수 있는 본래 타고난 종교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the heart, the human selfhood, as the Central seat of God's image, is endowed with the innate religious impulse to concentrate his whole temporal life and the whole temporal world upon the service to God”)—Dooyewee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Craig Press, 1972, p. 189)고 한 Dooyeweerd의 말에 대해 Taljaard은 만약 인간의 heart가 인간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본래 타고난 (자연적) 능력 (religious impulse)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전혀 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Dooyeweerd는 이러한 주장을 하므로써 “자신을 인본주의적 경향의 뿌리에서 벗어 나지 못 하게 했다” (failed to free himself of the root of humanistic tendencies” Taljaard, *Polished Lenses*, p. 158)고 혹평하고 있다.

Taljaard은 인간의 전적타락과 구세주의 철자가의 구속은혜에 의한 중생을 가르친 성경적 인간관에 입각해서 인간의 존재양상과 그 행위구조(act-structure)와 인간의 사회적 생과 관계를 설

명한다. 인간은 그 자신 개인으로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이 있어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움직이는 존재이다.

Taljaard 교수는 지식의 문제(인식론)도 존재론적 입장과 인간론과의 관련에서 다루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지식이란 언제나 “그 무엇에 관한” 지식 이요, 이 “그 무엇”은 언제나 지식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식은 언제나 “그 누구”(인간)의 “그 무엇”(실재)에 관한 지식이다. 그리고 이 “그 누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복종하거나 거역하거나)를 맺고 살아가는 heart를 가진 종교적존재요 그는 그 heart에 씌워진 안경의 lens를 통해 실재를 보며, 그 lens의 색깔은 그가 보는 세계에 대한 그의 이해와 태도와 행위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에 관한이론(인식론)은 자연히 우리의 존재론과 인간론의 입장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는 것이다.

인식론을 존재론과 인간론의 다음에 다룬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상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p. 250).

우선 지식은 “그 누구”에 의한 지식이다. 아는 자(knower)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만물을 미리 아셨고 현재도 아시고 영원히 아실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신이시다. 하나님은 그 아신 바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지적능력(intellect)을 부여하셨다. 종교적 존재인 인간의 지성이 동물의 그것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안 뿐만 아

니라 이성의 눈으로 선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율적 분별력이 있다는 점이다. 쾨의 기원은 인간의 그릇된 지적작용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명령에의 기억에 있다. 이는 heart에서 옮겨온 인간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heart에 씌워진 안경의 lens가 티끌없이 깨끗할 때 흐리지 않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지식은 언제나 그 대상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언제나 “그 무엇”에 대한 지식이다. 모든 지식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상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해 해석되며 이 해석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말씀의 바른 해석을 위해 우리의 heart에 씌어진 안경의 lens는 항상 깨끗이 닦여져 있어야 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의 법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인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인간에게 바른 인식이 가능하다. 인간의 알리는 활동이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철학은 가능하다는 것을 Taljaard는 강조하고 있다(pp. 250—267).

맺는 말

필자는 Potchefstroom에서 공부하고 있을 동안 Taljaard 교수를 직접 만나 뵈고 팔십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

는 영광을 누린 바 있다. 필자가 본 Polished lenses를 주의 깊게 읽고 난 후 그를 만나서 그에게 드린 첫째 질문은 “교수님의 철학과 조직신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양자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였었다. 이에 명확한 해명을 기대했었으나 그의 대답은 별로 신동치 않았었다. 대장 마다 붙어있는 ...by way of radical Biblical thinking이란 부제의 표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필자가 본서에서 철두철미 성경적 계시에 입각해서 문제들을 풀어 보려고 애쓰고 있음을 본다. 이에 그의 approach나 사상전개에 있어서 순철학적 사유에 의한 논리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성경이 철학적 사유에 의한 논리전개의 산물도 아니요 또 그러한 일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님이 비추어 아마 당연한 귀결일런지도 모른다. 성경적 계시에 입각해서 reason이 아닌 heart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철학이요 보면, 다시 말하면, 맹목적사유에 의한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중생된 마음(regenerated heart)에 의한 신앙적 결단이 기독교 철학의 생명이고 보면 본서의 이러한 특성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저자가 본서에서 하나님과 인식론의 영역까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웅장한 성경적 존재론을 체계화했음을 본다. 저자가 지식의 문제(인식론)까지를 실제의 문제로 그리고 인간론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취급한 점은 다소 이상히 여겨 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속철학이 불가지의 영역으로 돌리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창

조의 역사와 피조세계에 대한 주권적 통치와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등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기독교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의 이러한 문제처리는 당연한 고려로 받아들

여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Taljaard 교수의 Polished Lenses는 개혁신앙에 입각한 성경적 철학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

이	환	봉
강	용	원
이	상	규

교회 문제 연구 제 2 집 값 2,500 원

1981. 2. 10 인쇄
1981. 2. 15 발행

편집 교회문제연구소
발행 全 浩 鎮

연락처 : 600 부산 서구 압남동34. 고신대학. 교회문제연구소
등록번호 카-37호 전화 26-3181~3